

방화동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 및 공원화사업 추진 촉구 결의안

(송 영 섭 의원 대표발의)

2020 - 47

발의년월일: 2020. 5. .

발의자: 송영섭, 이충현, 김동협, 정정희
송순호, 김현희, 이충숙, 김성한
신낙형, 김용원, 경기문, 강선영
이의걸, 윤유선, 박성호, 황동현
박주선

1. 의결주문

- 「방화동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 및 공원화사업 추진 촉구 결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방화동 개화육갑문 일대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9개소가 밀집하여
방화동 주민을 비롯한 강서구민은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운반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 차량 통행으로 인하여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
- 서울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방화동 건폐장 이전을 약속하였으나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 강서구는 지난 2016년 실시한 방화건폐집적구역 대체지 검토 및 환경성
제고 방안 용역 결과에 따라 방화동 건폐장의 서울시 관외 지역 이전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 건폐장 이전 대체후보지 선정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건폐장 이전과
방화대교 남단 공원화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 방화동 건폐장과 지하철 5호선 방화차량기지의 서울시 관외 일괄 이전과 방화대교 남단 공원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방화동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 및 공원화사업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고자 함

3. 결의문: 붙임

방화동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 및 공원화사업 추진 촉구 결의문

강서구 방화대교 남단은 방화근린공원과 한강공원 강서지구, 강서습지생태공원이 인접하여 주민들의 쉼터로 사랑받고 있는 공간이지만, 방화동 개화육갑문 일대 3만 1,920제곱미터의 부지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9개소가 밀집하여 서울시 일일 발생 건설폐기물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2,500톤의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어 방화동 주민 9만 3천명을 비롯한 59만 강서구민은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운반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으며 해당 시설을 드나드는 일일 800여대의 중대형 차량의 통행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013년 8월 방화동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방문하여 건폐장 이전을 약속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하였으나 아직까지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강서구에서도 방화동 건폐장 이전을 위하여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당 사업은 추진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16년 9월 실시한 방화건폐집적구역 대체지 검토 및 환경성 제고방안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강서구에서는 방화동 건폐장은 서울시 관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하였으나 건폐장 이전 대체후보지 선정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원순환단지 조성이 지연되어 건폐장 이전은 물론 건폐장 부지를 포함한 방화대교 남단 공원화사업도 추진되지 않고 있다.

방화동 건폐장 이전은 강서구 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와 직결된 문제이므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서울시민 모두의 과제이며, 건폐장 부지를 포함한 방화대교 남단 숲 복원과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을 통한 방화대교 남단 공원화사업 추진 또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서울시민 모두의 숙원사업이다.

이에 강서구의회는 강서구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방화동 건폐장 이전과 방화대교 남단 공원화사업 추진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강서구의회는 방화동 건폐장과 지하철 5호선 방화차량기지의 서울시 관외 일괄 이전 원칙에 따라 서울시에서 종합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강서구의회는 방화동 건폐장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고, 건폐장 부지를 포함한 방화대교 남단 숲 복원과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을 통한 방화대교 남단 공원화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강서구의회는 방화동 건폐장 이전을 통하여 지역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서울시 등 관계기관이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2020년 5월 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